

< 갑질방지대책 요청 결의문 >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대투노협”)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감독기관의 갑질행위를 근절코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투노협”은 그 동안 대전광역시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의 독립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동자를 악의적으로 탄압한 감독기관의 갑질행위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감독기관은 우리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다. 수시로 “투자기관”의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사의 교섭결과도 부정하는 법 위에선 “슈퍼갑” 행세를 하며 “대투노협” 동지들을 교묘하게 탄압해왔다.

이에 “대투노협”은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갑질행태를 근절코자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요구한다.

1.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라!
1. 우리의 자율적 경영권을 보장하라!
1. 우리의 정관과 규정을 존중하라!
1.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라!
1.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우리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2021. 05. 24.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공동의장
대전마케팅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 상철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공동의장
대전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염 태선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공동의장
대전테크노파크 노동조합위원장

김 경훈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감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 중철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조 성민 